

# 여야 '대화록 폐기' 공방 격화... 정기국회 대치 심화

### 새누리 "국기문란 사건...문재인의원 법적 책임져야"

### 민주 "국면전환 활용 말고 불법유출 경위 수사하라"

### 검찰, 참여정부 핵심무진들 내주 초부터 소환 조사

여야는 3일 참여정부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국가기록원에 보관하지 않았고, 봉하마을로 유출됐다 반납된 이른바 '봉하 이지원(e知園)'에서 대화록 삭제 흔적이 발견됐다는 검찰의 전날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놓고 이틀째 공방을 주고 받았다.

새누리당은 대화록 실종을 '국기문란 사건'을 규정, 민주당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는 한편, 정상회담 당시

비서실장을 지낸 민주당 문재인 의원을 정조준했다.

반면, 민주당은 기초연금과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 등으로 수세에 몰린 국면전환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대화록 사전 유출 및 대선 활용 의혹을 문제 삼아 역공을 했다.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논평에서 "참여정부가 의도적으로 대화록을 은폐하려고 했던 정황이 드러난

것"이라면서 "이번 사안은 '사초 실종'이라는 중대한 국기문란 사건으로 검찰은 대화록이 언제, 누구에 의해, 무슨 이유로 사라졌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상회담 회의록 새누리당 열람위원단장인 황진하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화록이 '팜스'(대통령기록물 관리시스템) 사본에 존재한다"며 "사초 실종 주장은 허구"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화록이 '팜스'(대통령기록물 관리시스템)에 등재돼 있지 않다는 대통령이 NLL을 포기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던 정지생명을 그만두었다고 했다"며 "정치적 책임도 본인이 먼저 얘기했을 뿐더러, 이제 수사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른 응당한 법적 책임도 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반해 유운근·전혜철·박남춘 의원 등 정상회담 대화록 민주당 열

람위원들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대화록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이 2008년 대통령기록관에 반환한 이 지원(e-知園·참여정부 청와대 업무 관리시스템) 사본에 존재한다"며 "사초 실종 주장은 허구"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화록이 '팜스'(대통령기록물 관리시스템)에 등재돼 있지 않다는 대통령이 NLL을 포기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던 정지생명을 그만두었다고 했다"며 "정치적 책임도 본인이 먼저 얘기했을 뿐더러, 이제 수사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른 응당한 법적 책임도 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이날 대구시 내 음식점에서 가진 대구지역 주요 인사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예컨대 여권인 사초 실종이라고 공격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면서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 당시 선거캠프에 대한 대화록 사전 유출 의혹과 대선 유세 활용 의혹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광수 부장검사)는 대화록이 노무현 정부 시절의 청와대 문서관리시스템인 '이지원'에 회의록이 탑재됐다 사 제된 것과 관련, 해당 업무를 담당했던 청와대 실무진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박지경기자 jkpark@

## 정가 라운지

### 강기정 "기초연금법 제정 국회특위서 논의돼야"

민주당 강기정(광주 북구 갑) 의원은 3일 "정부는 기초연금 제정법 제출 입법 추진을 중단하고 국회 특위의 논의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정부의 이번 기초연금 제정법 입법 예고안에는 기초연금 액수의 계산 방법과 적용 기간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위임시켜 버렸다"며 "이는 앞으로 국회 입법을 거치지 않고 정부 마음대로 바꿀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지금 정부가 해명하는 내용조차 앞으로 지키지 않을 수 있다는 속



내를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정부와 새누리당은 졸속 입법 추진을 중단해야 하며, 국회는 기초연금에 대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특위는 1~2개월이 아니라 해를 넘기는 한이 있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을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김동철,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심사위 법안 발의

민주당 김동철(광주 광산 갑) 의원은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관위·정부·지자체·시도교육청 등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별로 뽑힐 흡수되어 있는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심사 기준을 하나로 통합한 '취업제한 심사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4일 밝혔다.

김 의원은 "올해 주주총회에서 새로 선임된 20대 그룹 상장사 사외이사 94명 중 30%가 넘는 29명이 법조계와 국제청, 공정위 등 이른바 3개 권력기관 출신이었고, 나머지 정부 부처 관리 출신 사외이사들까지 합치면 그 수는 51명으로 전체의 53.3%에 달한다"며



"헌법기관·정부·지방자치단체별로 나눠져 있는 관할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소속 기관 퇴직 공직자에 대한 취업제한을 심사하기 때문에 '제 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법안은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심사를 전담하기 위해 안전행정부에 국회가 추천하는 3인,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3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취업제한 심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장병완 "해외 불법·유해 앱 규제 대책 시급"

민주당 장병완(광주 남구) 의원은 3일 모바일 앱마켓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사가 시작된 2012년 이후 해외 앱마켓의 유해 앱 결정이 285건, 불법 앱 결정이 18건으로, 유해 및 불법 건수가 전무한 국내에 비해 해외 앱마켓의 불법·유해 적발건수가 월등히 많다고 밝혔다.

장 의원이 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285건의 청소년유해매체 지정 앱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278건이 구글 스토어에서 유통되었으며, 애플 앱 스토어도 7건에 달했다. 불법 관정을 받은 앱 18건도 모두 구글 스토어 앱으로 조사됐다.



장 의원은 "불법·유해 앱 적발이 해외업체에 집중된 것은 일부가 사후심의를 적용하고 있는데, 국내업체와 달리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불법·유해 앱 유통에 대한 정부 당국의 행정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이라며 "미래부와 방통위 등 관계당국은 깨끗하고 공정한 모바일 환경을 위해서라도 해외앱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

## 광주시교육감 선거 앞두고 진보 진영 후보들 '신경전'

### 윤봉근·정희곤 "장회국측서 후보 양보 제의" 불만

내년 광주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진보 진영 후보들 사이에 신경전이 치열해지고 있다. 내년 교육감 선거 출마를 준비중인 전교조 출신 후보들의 진보 진영에 대한 견해를 제시했고, 양보가 안 될 때는 지역 원로들의 도움으로 현 교육감을 재추대할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해와 안타까웠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장 교육감은 그렇게 전력을 다해 지원했던 시민·학부모·교사·교직원 등으로부터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일방통행식 교육행정의 미숙한 지도력을 보여줬기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윤 의원은 "장 교육감을 재추대하지는 의견에 동의할 수 없고, 이제 범시민 후보의 틀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광주시교육감 선거 출마 의사를 밝힌 정희곤 광주시의회

교육위원회 지난 1일 기자회견에서 "같은 전교조 출신이지만 장 교육감과 시 교육청을 바라보면서 많은 실망을 했다"며 "진보 후보들의 견해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좋은 교육감을 뽑는 가장 객관적인 방법인 후보 간 경선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추석 전 현직 교육감과 그 측근들로부터 후보 양보를 요구받기도 했지만 거부했다"며 "추대방식은 현재 수세에 몰려 있는 전교조 측 후보군의 지지를 얻을 수 없으며 경선만이 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장 교육감에 대한 맹공이 이어지는 배경에는 지난 2010년 선거에서 시민 후보로 추대됐던 장 교육감이 진보진영의 단일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틀에 대해 논의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이 또다시 시민 후보로 추대되기를 바라고 있는 데 대해 불만이 폭발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장 교육감과 그 측근들이 진보 진영 후보들에게 잇따라 후보 양보를 요구하고 나선 데 대한 불쾌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이며, 향후 진행될 진보진영 후보 단일화 작업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포석으로도 분석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 임내현·오른쪽에서 세번째)과 대구시당(위원장 홍의락·오른쪽에서 두 번째)은 3일 대구 수성대에서 열린 '민주·민생 살리기 대구 결의대회'에 참석, 자매결연 협약을 맺은 뒤 양 시장 당직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민주당 광주시당 제공)

## 정치권도 '달빛동맹' 민주당 광주·대구시당 자매결연 협약 상호 교류 활성화...김한길 대표 참석

광주시와 대구시가 최근 '달(달구벌)·빛(빛고을) 동맹'을 통해 영호남 교류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광주와 대구 정치권도 상호교류 협력을 하기로 했다.

민주당 광주시당과 대구시당은 3일 대구에서 자매결연 협약을 맺고 상호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양 시장은 이날 대구 수성대에서 열린 민주당 '민주·민생 살리기 대구 결의대회'에 참석해 협약을 가졌다. 협약식에는 대구시당 위원장인 홍

의락 의원과 광주시당 위원장인 임내현 의원을 비롯한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전국 순회 투쟁 중인 김한길 대표도 참석해 격려했다. 양측은 협약식에서 민주당의 발전과 영호남의 화합, 정권교체라는 공교의 목표를 위해 ▲영·호남 화합을 위한 다양한 행사 추진 ▲연 2회 이상 정기교류를 통한 친목 도모 ▲상호 협조 요청 시 인적·물적 지원 지원 등을 약속했다.

앞서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결의대회에 참석해 박근혜 정부 복지공약 후퇴 문제와 국가정보원 정치개입 의혹을 규탄했다.

한편, 강은태 광주시장과 김범일 대구시장이 올해 '달빛동맹' 강화를 위한 공동협력사업협약을 체결했으며, 이를 통해 광주시와 대구시 공무원들이 상대 도시를 교차방문해 교류 협력사업 등을 펼치는 등 양 도시 간 행정·인적교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행복한 부지를 위한 자산관리 전문회사**  
**ASSET KOREA**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부실채권(NPL) 매각**  
 화정동 예식장  
 대지:1094㎡ 건물:4489㎡  
 감정가격:41억5천만원 채권매각:상담시 공개  
 월총동 공장  
 대지:광주광역시 건물:2353㎡  
 감정가격:21억6천만원 채권매각:상담시 공개  
 금남로4가 빌딩  
 대지:800㎡ 건물:4834㎡  
 감정가격:69억3천만원 채권매각:상담시 공개  
 쌍암동 무인텔  
 대지:1760㎡ 건물:2821㎡  
 감정가격:46억 채권매각:상담시 공개  
 부실채권 매각은 현재 경제진행중이거나 정치중인 물건을  
 유통화 자산매각 전문회사인 에셋코리아를 통해 선착순  
 수의계약으로 채권을 매입하는 유용한 제테크 방법입니다.  
 상담 010-7570-7525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17-1  
 (1층 국민은행 본영 사옥)

**신한공인중개사**  
**신축 원룸 상가 매매**  
**신축원룸**  
**전대 상대 농대 입구 1분**  
 룸11개 4층 주택가능  
 (전면대리석 벽돌시공)  
 상가 1개, 원,투룸,쓰리룸10개  
**매가 6억(준공완료)**  
**월수익 500만**  
 ★수완지구 상가 4층 중 3층 매매 (85평)★  
 모아엘가 APT후문 바라앞  
 매가 3억3천(현재 40평 임대중)  
 용자 2억5천 보 1천70만  
 ★수완지구 1층 상가 임대 (17.5평)★  
 1층 보증금 3천 월 130만원  
 (현재 부동산 운영중)  
 기타물건 접수 (1억~100억)  
 ☎(062)952-5584  
 H.P. 010-6670-9800

**부동산 성공 투자**  
**하늘땅 공인중개사 가 함께합시다**  
**상가/건물**  
 \* 도천동 창고 대지 2,500㎡,건평 500㎡ 매매 18억  
 \* 사우나건물(8층) 매 17억4천(보증금 8천, 월800만),직영수입 별도  
 \* 두암동 5층 건물 매 8억4천  
 \* 첨단 구본점포 105㎡ 매 8억6천 (보증금 8천, 월430만)  
 \* 첨단 월계동 건물 매 27억(보증금 2억8천월 1,600만)  
 \* 예식장건물 65억(병원,교회등 다목적이용 가능)  
**대지/전답**  
 \* 나주 혁신도시인근 토지 7,800㎡(구 2,400평) 3.3㎡당 80만원  
 \* 광산구 신창동 생산농지 1,980㎡ 매 6억4천  
 \* 완도군 악산면 토지 11,000㎡ 매 8억4천  
 \* 장흥군 장평면 대지 및 전 13,165㎡ 매 3억4천  
 \* 장흥군 용산면 101,851㎡ 매 6억  
 \* 여수 돌산읍 전 1,874㎡ 매 2억  
**기타**  
 \* 광산구 보덕동 주유소 매 7억(보 1억,월 350만)  
 \* 나주시 문평면 국도 1호선변 주유소 매 7억 (용 4.5억 포함)  
**광주,전남권 매도·매수 상담,접수 환영**  
 부동산 투자의 새로운 패러다임  
**하늘땅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5536-0382 Fax 062) 974-0449

**신도시 공인중개사 사무소**  
**■ 상가건물이나 땅 삽니다 ■**  
 금메로 팔아야할 상가나 땅이 있으시면  
 저희 부동산에 전화 주십시오.  
 최대한 빠른 시일에! 높은 가격에!  
 바로 처분해 드립니다.  
**상가건물 매매**  
 \* 풍암동 상업지역내 위치 좋은 신축상가  
 대지520㎡, 건물 3,135㎡ 대총28억 포함  
 매매가 42억.  
 \* 동천동 대지 705㎡, 건물 185㎡. (수익률 좋음)  
 매매가 16억5천만원.  
 \* 쌍촌동 대단위아파트단지 내 대지 350㎡  
 건물 996㎡ 매매가 16억.  
 \* 수완지구 대지 316㎡, 건물 632㎡  
 매매가 15억  
**토지 매매**  
 \* 남구 주월동 대지 3,768㎡  
 도시형생활주택, 소형빌라 신축적합 매매가 32억.  
 \* 광산구 수완동 수완자동차매대단지 입구. 전 2,230㎡  
 광고효과 최고, 물류센터, 타이어 적합. 매매가15억.  
 \* 화순군 동면 오동리 전, 임야.  
 계획관리지역 17,730㎡ 매매가 2억9천만원.  
 \* 나주시 부덕동 2차선 도로점 제1종일반주거  
 지역 내 전 2,350㎡ 건축가능, 투자적합  
 매매가 1억9천만원 (금메)  
 바쁘시더라도 대면해서 상담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시 만큼 보답하는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 062-513-4985, 010-2338-3113

**금매매**  
 신인동 신안 사거리  
 부근 30m  
 도로변 코너  
 6층 상업지역 건물  
 건물 600평  
 토지 151평  
 평당 토지 가격  
 600만원 정도  
 토지 가격 만도  
 9억정도  
 매매가격  
 9억 4천만원  
 라멘조 총별  
 100평 정도  
 조건은 전세,  
 월세 안고 구입  
 010-3215-9969